

2024 11
제238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2 좋은글, 좋은 시
- 03 구정소식
- 04 걸어서 대덕속으로
- 05 대덕구민의 날
- 06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7 [대덕구기관장협의회] 김종화 대덕소방서장
- 08 열린의정
- 10 [인물 인터뷰] 박서용 대덕구 목상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 11 대덕톡톡

가을비

박 대 순(시인, 대덕문학회 회원)

오래 전 우리가 함께 걸었던 고향 돌담길에
오늘 가을비가 내린다.

우리가 서로 어색한 눈빛을 던지는 동안
함께 서서 바라보던 돌담길 모퉁이 긴 해그림자에
고향 숲이 잠들고 있었다.

어제는 우리가 노을처럼 사랑하고
오늘은 꽃 진 자리에 남아 그리워하다가
내일 이 자리를 뜨고 나면
아쉬운 바람만 한동안 불겠지요

바람이 부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 그리워하며
한 세상 살다 가겠지요.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4년 11월 5일(제 238호)

“혁신 아이디어 정책 반영” 2024 주민제안공모전 시상식



은상 김성진 씨 ‘대전조차장역 심리둘레길 조성’ 제안
동상 손동환·장려상 최은주 씨 선정

대덕구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창의적인 적극 행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4 대덕구 주민제안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구는 지난 8월 한 달간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4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후 실무 심사위원회 1차 심사, 제안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은상 1건 △동상 1건 △장려상 1건 △노력상 5건 등 총 8건의 제안이 최종 선정됐다. 금상은 시상 등급 미충족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주민제안공모전은 지난 2023년 공모전에 1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42건이 접수돼 대덕구 구정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2024 주민제안공모전’ 은상은 김성진 씨가 수상했다. 김성진 씨는 24 시간 기차 소리와 함께하는 지역 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해 철도 용지를 활용, 읍내동의 문화재를 재정비해 둘레길과 연계하여 힐링 명소 조성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대전조차장역 심리둘레길 조성’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동상에 손동환 씨가 제안한 ‘명품 대청호 로하스 공원길 구축’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 최은주 씨가 제안한 ‘여성 1인 가구 안심벨 지원’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노력상에 △대전육교 및 길치근린공원 관광 브랜드화 조성 방안 △지식강연 시리즈(우리 주변의 과학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문화와의 만남 공간 조성 △make clean & healing 친환경 대청호 프로젝트 △담배꽂초를 질문상자에 버리게 하기 등이 선정됐다.

대덕구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지열 설비 착수

대덕구민들의 염원인 대덕구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구는 지난 10월 8일 LH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열 설비 설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한 지열설비는 지열공 120공 300m 깊이 규모이며 구는 연말 까지 천공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적용해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공공청사로 구축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연축동 신청사가 북부 신탄진과 남부 오정·송촌권을 아우르는 행정복합 타운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청사는 연축동 도시개발지역(24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4만 8810㎡ 규모로, 청사, 의회, 보건소가 들어서며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대전 대덕구 세팍타크로팀, 제105회 전국체전 은메달 획득



김태경 감독 지도 아래 부산환경공단·대구시청 격파
결승서 강원도체육회에 아쉽게 패배… 창단 이후 우수한 성과 거둬

대덕구청 세팍타크로팀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세팍타크로 남자 일반부 레구(3인조)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팍타크로는 말레이시아어로 ‘차다’라는 뜻의 ‘세팍’과 ‘공’을 뜻하는 ‘타크로’의 합성어로 구기 종목이다. 우리나라의 족구와 유사한 종목으로, 코트에서 선수가 네트를 사이에 두고 팔을 사용하지 않고 공을 발로 차 승패를 겨룬다.

이번 경기는 경상남도 김해 진영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대덕구청 세팍타크로팀은 김태경 감독의 지도 아래 고재욱 선수를 포함한 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대덕구청 세팍타크로팀은 부산환경공단과 대구광역시청을 상대로 각각 2:0의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으나, 강원도체육회에 0:2로 아쉽게 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구 관계자는 “세팍타크로팀 팀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올해 1월 직장운동경기부 세팍타크로팀을 공식 창단해 △‘2024 ISTAF 세팍타크로 월드컵’ 레구 종목 세계 3위 △2024 시·도 대항 세팍타크로대회 2종목 동메달 획득 등의 성적을 거뒀다.



대전 대덕구·회덕농협·신탄진농협, 지역 상생발전 ‘맞손’

지역사회 발전 도모·경제 발전 기여·우호 증진 교류 활동 등 추진

대전 대덕구가 상생발전 및 공동 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농협과 손을 잡았다.

구는 지역 내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회덕농협, 신탄진농협과 ‘대덕구 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행정, 복지,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의 발굴·추진을 통한 각 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발전 기여 △상호 호혜적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 추진 등이다.

회덕농협과 신탄진농협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더 나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회덕·신탄진 농협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지역 상생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송촌도서관 '대덕에서(愛書) 함께 하는 북 에피소드' 개최

오는 9일 '그리스 로마 신화' 주제 작가 특강·금관 5중주 공연 등 진행

송촌도서관이 오는 9일 독서 문화 캠페인 '대덕에서(愛書) 함께 하는 북 에피소드 행사'를 개최한다.

책을 매개로 소통과 공감하는 이번 행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깊이 있는 작가 특강 △몰입감 있는 공연 △독서마라톤 완주자 독서노트 전시 △포토존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먼저 특강 시작 전 반 브라스(Van Barss) 밴드의 금관 5중주 공연 '반 브라스 밴드와 떠나는 신화 여행'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김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김현 교수와 떠나는 신화의 숲 여행'이라는 주제로 TV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특강과 북토크를 진행한다.

접수 및 기타 문의는 대덕구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608-5882)로 연락하면 된다.



대덕구민기자단 오늘의 소식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 여행지

'덕을 품은 굴다리 이야기거리'

대덕구 회덕동의 '덕을 품은 이야기 길'은 회덕동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길로, 그 속에 담긴 많은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흔적과 더불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벽화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역사와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 닿은 곳은 '어사 홍원모 영세불망비'와 '비각'입니다.



회덕 지역 주민들이 조선 후기의 어사 홍원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과 비각으로 홍원모는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민심을 안정시킨 인물로, 그의 덕행은 회덕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길에는 '어사 홍원모'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벽화의 일부가 사라지고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아기자기한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에서 벽화들을 둘러보며 걷다 보면 '덕을 품은 굴다리 이야기거리'의 출발을 알리는 간판이 보입니다. 이곳 이야기거리는 이곳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은 대전의 근현대 건축물을 주제로 한 게시물입니다. 이 게시물에는 대전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구(舊) 철도 관사촌부터 대흥동 성당 등 현재 남아있는 근현대 건축물입니다. 사진 속 건축물은 그 자체로 대전의 역사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예고하는 상징적 존재로 보존하고 보존되어야 할 지역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현대 놀이를 주제로 한 벽화와 함께 있는 말뚝박기 조형물은 지역 사회의 전통 놀이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흥미로운 만화로 그린 벽화입니다.



아이들이 말뚝박기하며 뛰어노는 모습이 그림과 함께 조형물로 재현되었습니다.

이곳을 바라볼 때마다 아쉬움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며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실감하며 받아들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것은 '뒷골 장승'입니다. 이 장승은 지역의 전통을 상징하는 보호 신으로,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서 있는 장승을 바라보면, 그 속에 담긴 지역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느껴집니다.

덕을 품은 이야기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많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회덕동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가을, '덕을 품은 이야기 길'에서 회덕동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024 대덕구민기자단 안성진>

걸어서 대덕속으로

계족산성

대전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 정상에는 국가유산 사적 335호로 지정된 계족산성이 띠를 두르듯 걸쳐있으며, 둘레가 1037m로 대전 인근 30여개 산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산성이다.

금강 하류 지점에 위치하고 성 내에 백제시대 토기 조각이 많이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산성은 백제가 멸망한 뒤 백제부흥군이 신라군의 진로를 차단하기도 했고, 조선 후기 동학농민군이 한때 점령하기도 한 산성이다.

삼국시대 축조된 산성은 대개 교통의 길목에 위치해 방어에 거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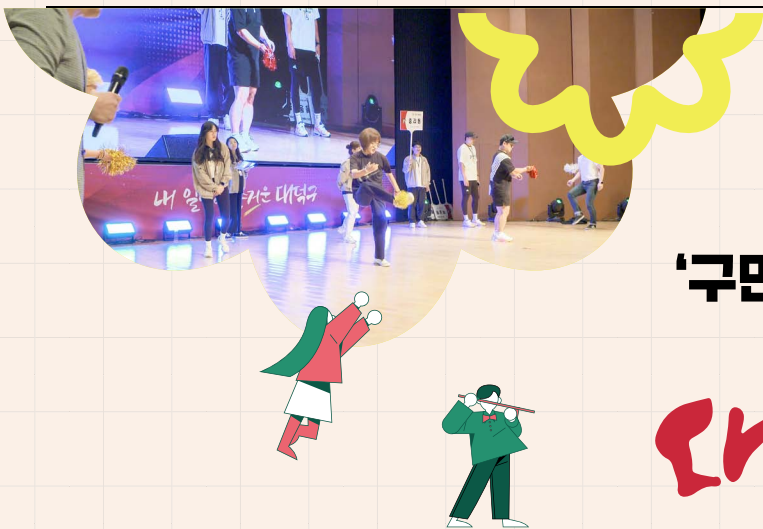
활용됐던 만큼 계족산성 또한 당대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지켜야 했던 장소였다.

장동 산림욕장에서 쉬엄쉬엄 1시간쯤 걸어 오르면 우람한 성벽과 마주한다. 오래된 성벽 너머로 탁 트인 대전 전경을 볼 수 있어 가슴 속까지 후련해지는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 장소이자, 새해를 여는 해맞이 장소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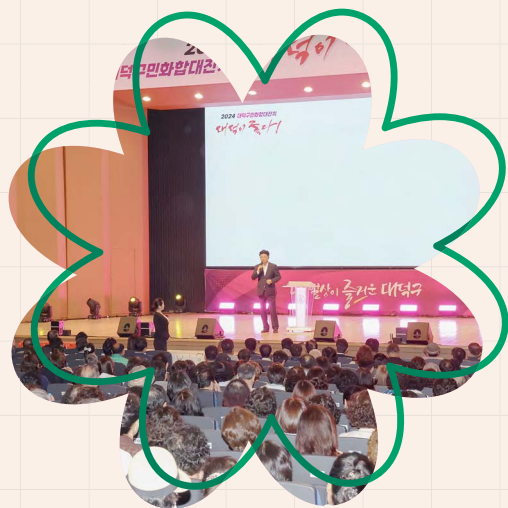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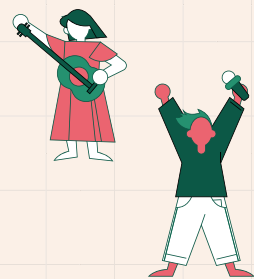


대덕구민 화합의 장

2024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대잔치' 성황리 마무리

대덕이 즐겁다!



지난 10월 5일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구민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2024년 대덕구민화합대잔치'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12개 동 주민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이어지며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개막식에서 대덕구민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덕구민대상은 지역
발전, 체육진흥, 충효실천,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해 구민들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로는 △지역발전 부문 김영신 △체육진흥 부문 윤경수 △충효
실천 부문 심영낙 △사회복지 부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대덕지구
협의회(회장 이순화) △문화예술 부문 들말두레소리보존회(회장 심원생)가
선정돼 수상을 진행했다.

김영신씨는 법2동 주민자치회장과 대덕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 사업에 앞장서 왔으며, 법동소류지 경부
고속도로 통과 박스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경수씨는 송촌동체육회, 대덕구테니스협회, 대덕구체육회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노후화된 체육 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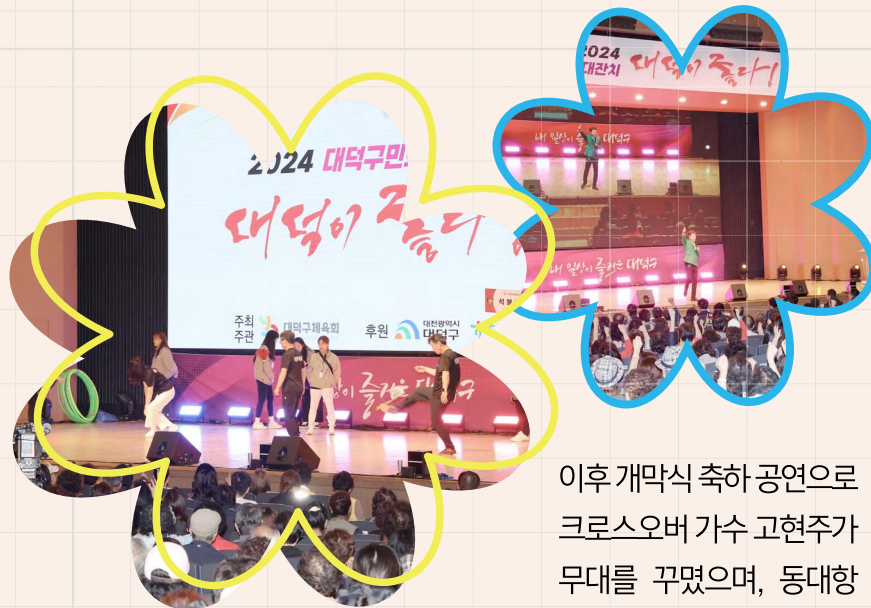
심영낙씨는 전 대덕구새마을부녀회 회장, 현 대덕구새마을회 이사로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으며,
몸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30년 넘게 봉양해 충·효 실천의 본보기가 된 점을
인정받았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회장 이순화)는 대덕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봉사단체로서 사랑의 빵 나눔, 이·미용
봉사 등 정기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오정동 가스폭발 사고같이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다.

들말두레소리보존회(회장 심원생)는 잊혀 가는 전통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정기시연, 일반인 강연, 후계자 양성 등 다방면에서 힘을 쏟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과 지정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으며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전달하고 전통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한
공적이 인정받아 이번 구민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계족산향토틸 조성 및 지역사랑 장학금 캠페인, 친환경제품 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대덕구 발전에 기여한 조웅래 (주)선양소주 회장을 6번째
대덕구민으로 선정, 명예 구민 증서를 수여했다.



이후 개막식 축하 공연으로
크로스오버 가수 고현주가
무대를 꾸몄으며, 동대향
제기차기, 훌라후프 돌리기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각 동의 주민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고
협동심을 발휘하는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축하공연은 가수 장민호와 김의영이 화려한 힐링 콘서트
무대를 꾸며 행사에 참여한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번 구민화합대잔치에 참여한 한 구민은 “많은 주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생활의 활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대덕구민이 주인공인 구민의 날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변함없이 넉넉하고 맛있는 엄마 집밥 목상동 '을미기식당'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54번길 94(목상동 866-1)/042-932-7797
- 오늘의백반 7000원, 된장찌개 7000원, 갈비탕 8000원, 돌솥비빔밥 8000원
김치찌개 동태찌개 각 9000원, 돼지두루치기(中) 2만원
- 영업시간 : 07:00~21:30(브레이크타임 없음)
- 정기휴무일 : 매주 일요일(단체 손님 사전 예약 시 영업 가능)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국 1인 가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바야흐로 1인 가구 전성시대다.
직장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혼자서 타지에서 살다 보면 엄마 밥이 생각 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을미기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을미기식당(대표 이영옥)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엄마의 집밥 같은 음식을 선사하고 있는 백반 맛집이다.
지난 1999년 9월 11일 이곳에 식당을 오픈했다는 이영옥 대표는 지난 25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과 깔끔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인근 대덕산업단지(구 신탄진 3, 4공단) 근로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집은 백반, 김치찌개, 동태찌개, 돌솥 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지만 점심시간이면 손님이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아도 백반 정식이

차려진다.

묵은김치, 열무김치, 곰취장아찌, 오징어젓갈 무침, 오이장아찌, 멸치볶음, 돼지 수육 등의 반찬과 시래기 울갱이 해장국 등 한 상 가득 차려져 점심시간에는 백반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또, 저녁 시간에는 생삼겹살, 제육볶음, 백숙·닭볶음탕 등 술안주로 제격인 음식들이 이영옥 대표의 손맛과 어우러지며 애주가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10~20년씩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손님이 많아 반찬 구성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영옥 대표는 “매일 반찬 구성을 다르게 해 자주 오시는 손님들의 입맛이 질리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봄철에는 밭에서 갓 채취한 싱싱한 냉이를 닭볶음탕에 살포시 얹어 내놓는 등 제철 나물도 큰 인기 반찬 중의 하나입니다. 남편이



세종시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해 손님들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식자재비 절감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라며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을미기식당은 백반 7000원, 갈비탕 8000원, 김치·동태찌개 각 9000원 등 점심 메뉴 가격이 채 1만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착한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옥 대표는 “손님들 모두가 정다운 사촌이 지요. 앞으로도 제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아 손님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퇴근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등 엄마의 손맛을 고스란히 담아낸 ‘을미기식당’에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해물요리의 진미 목상동 '해물가'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58번길 35 1층(목상동 150-9)/042-933-3356
- 대구탕 1만2000원(2인 이상), 명게비빔밥 1만2000원
해물뚝배기 1만3000원, 해물물회 1만3000원
해물찜·해물탕·대구뽕찜(2~3인) 각 4만원
문어해물탕·문어해물찜(4인) 각 6만원
- 영업시간 : 11:00~22:00(브레이크타임 15:00~17:00)
- 정기 휴무일: 매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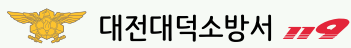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고의 해물 요리의 ‘본산’을 꼽으라면 단연 경남 통영이 아닐까. 풍부한 어획량을 바탕으로 제철 생선회는 물론 굴, 복어, 멍게, 주꾸미 등 다양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정 통영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정성 깊은 손맛으로 통째로 담아내는 해물 요리 맛집이 최근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상륙해 미식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덕구 목상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해물가(대표 하정애)는 지난 6월 11일 오픈해 약 5개월 된 음식점이지만, 깔끔하고 단정된 실내 공간, 체계화된 메뉴 구성 및 주방 시스템 등 베테랑 해물 요리 전문점의 기운이 물씬 풍긴다.
이 음식점의 가장 큰 강점은 경남 통영이 고향인 하정애 대표의 제대로 된 식재료 공급망 확보라 할 수 있다. 해물가는 통영산 수산물을 현지 어장에서 바로 공수해 오고 있으며, 일반 해산물은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물차를 통해 매일 생물로 배달받고 있다.

하정애 대표는 “해산물마다 제철이 있어 100% 생물만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80~90%를 생물로 요리합니다. 말 그대로 바다를 팔고 있습니다”라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해물가식당에서는 해물뚝배기, 대구탕, 명게비빔밥 등 점심 특선으로 해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또, 2~3인이 드실수 있는 해물찜, 해물탕도 오징어가 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새우, 전복 등 다양한 해물들이 듬뿍 들어가 있어 허리띠 푸르고 먹어야 할 정도로 푸짐하다.
이 집의 최고 인기 메뉴는 문어 해물찜·문어 해물탕이다. 막 차려 나온 문어 해물찜은 황제의 밥상이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다. 귀한 문어가 통째로 올라왔고 여기에 갑오징어와 새우, 전복, 꼬막, 소라, 가리비 등 각종 조개류가 푸짐히 들어 있다. 또, 배추, 콩나물, 청경채, 미나리 등 각



종 채소도 듬뿍 들어가 있어 전반적으로 양념이 짜지 않으면서 맵기 조절도 가능해 소주 안주로도 제격이다.
이밖에 탕탕하면서도 부드러운 대구 뽕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대구뽕찜은 물론, 도다리썩국, 과메기, 삼식이무침 등 계절 메뉴들도 때에 맞춰 준비해 내놓고 있다.
하정애 대표는 사실 고향인 경남 통영과 목상동 이웃 동네인 유성구 관평동 등에서 30여 년 넘게 해물 요리 전문점을 운영해 온 베테랑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관평동 식당을 그만두고 잠시 침을 가진 후 딸이 살고 있는 이곳 목상동에 해물 요리 전문점을 새롭게 오픈 했다고.
하정애 대표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이 음식 장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손님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찾아오실 수 있는 음식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김종화 대덕소방서장

“도와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린아이도 제일 먼저 외치는 번호가 바로 119다. 그리고 화재,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전염병 환자 이송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대덕소방서는 지난 1991년 5월 개서(당시 대전 동부소방서)이래 만 33년간 ‘안전하고 재난 없는 대덕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해왔다.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지난 7월 1일 제24대 대덕소방서장으로 취임한 김종화 서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 상황, 향후 운영계획, 대덕에 대한 개인적 소회 등을 들어봤다.



김 종 화
대덕소방서장

Q. 대덕소방서장으로 취임하신 지 4개월이 지나셨는데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대덕소방서장으로 취임하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대덕구는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그 무게를 실감하며 긴장과 설렘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전 직원이 일치단결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 내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Q. 대덕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목표를 소개해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예방 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화재나 재난은 사전 대비가 중요하므로 지역 주민과 기업, 학교 등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안전 교육과 훈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첨단 장비 도입과 인력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Q. 소방관들의 복지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방관들의 시기와 근무 만족도가 높아야만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방관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 시설을 보강하고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소방관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승진 및 평가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Q. 대덕소방서장 취임 이전 대덕구와 인연(근무·거주 등)을 소개해 주신다면?

과거 동부소방서에 근무하며 대덕구와 관련된 여러 재난 대응 및 예방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덕구는 대규모 산업 단지와 주거지가 혼재해 있어

화재 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덕구의 특성과 지역 안전에 대해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번 대덕소방서장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덕구 주민들과의 인연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대덕소방서장 취임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기회입니다.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향후 대덕소방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대덕소방서를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덕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Q. 끝으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안전은 소방서 혼자만의 생각과 행동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평소에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비상시 대처 방법을 숙지해 주시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덕소방서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곁에 있으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전석광 의원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의장 소임 다할 것”



대덕구의회는 지난 9월24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열고 전석광(55·무소속)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충북 청원 출신의 전석광 신임 의장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자치분권위원장, 전 박영순 국회의원 대외협력특보 등을 지냈다. 전 의장은 “기쁜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민께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장이 지닌 대표적인 지위와 권한을 보면, 우선 대덕구의회 대표자로서 의장 이름으로 발표한 ‘의사(意思)’가 법률상 의회의 의사로서 효력을 지닌다. 이어 의장은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광범위한 의사 정리권이 있다. 이는 독자적인 의견과 판단으로 사안의 성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회의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또 의장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독권과 함께 의회사무에 대해 최고 결재권자가 된다.

대덕구민들께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제9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석광입니다.

우리 대덕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덕구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의원들은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누구나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덕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을 위한 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덕구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의회 역할]

의장 선출과 함께 제9대 대덕구의회 후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대덕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독립기관이다. 이에 대덕구의회는 지위와 권한을 소개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덕구의회를 역할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 <편집자주>



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해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의결기관의 지위

집행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입법기관의 지위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된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감사기관의 지위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집행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로 가진다. 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다.



의회의 권한

▶ 의결권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가 그 관할사항에 대해 행하는 합동적인 의사결정권을 의미한다.
- 의회의 의결권은 제한적 열거주의에 의해 법정사항으로서 그 의결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제1항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행정감시권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행정감시권은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그리고 그 확인

수단으로서 서류의 제출 요구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 등이 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에 시정전반에 관해 감사 (조례로 정함)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 선거권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 외에 의회 조직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장, 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이 있다.

▶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임시회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관련규칙제정
- 위원회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 결정권

▶ 청원수리권

-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이송처리하게 함.

▶ 구정질문과 자료요구

- 구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상황이나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질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의견 표명권

공공이익을 위해서 집행기관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 단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원의 지위

의원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하고 의사에 참여하며, 의안을 제출하고 청원을 소개하며, 모욕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권리를 갖는다.

지방의원은 지위와 관련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품질명장의 재능기부 박서용 대덕구 목상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2003년 한국타이어 입사... 제조설비 및 프로세스 보완·개선 골몰
2015년 '국가품질명장' 선정...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등 봉사활동 나서
“품질명장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공헌... 더 뛰어난 명장들 나오길”



박 서 용
대덕구 목상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실수를 개선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

대전 대덕구 목상동 주민자치회 박서용(52) 부회장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도전하며 가진 재능으로 이웃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

현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된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이름도 근사한 '국가품질명장'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가에서 부여하는 칭호로, 대통령 명의로의 패와 증서가 수여된다.

지난 1991년부터 시행돼 온 이 제도를 통해 그간 1552명의 명장을 배출했으며, 박씨는 지난 2015년 제25기 품질명장 수상자 21명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가 '명장(名匠)' 칭호를 부여받은 분야는 품질경영 부문이다.

품질 향상과 효율적 경영의 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과 경영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이다.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세상에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품질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직장을 다니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화학공학을 전공한 박씨는 지난 2003년 5월 협력사의 추천을 받아 한국타이어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이후 그는 자신의 취업을 추천해 주신 분들과 또 자신을 믿고 채용해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일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설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또, 일과 후에도 2시간 이상 회사에 남아 공장의 설비를 운전하면서 잘 가동되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골몰하고 머릿속에 그려보는 일을 반복해 나갔다.

나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생산 시스템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불규칙을 잡아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쥐어 짜냈다.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 이 같은 계획적인 행동과 생활 습관이 그를 명장으로 만들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서용씨의 이런 노력은 하나하나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입사 5년 차인 지난 2007년 타이어 제조설비의 반제품 재단 각도 조절 방법을 개선, 회사로부터 개선마스터 자격부여와 함께 1년에 1명만 선정하는 1호 Top마스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10년부터 5년간 약 900여건의 개선 제안을 내놓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이 수여하는 전국 제안상 금상을 차지한 데 이어 마침내 2015년에는 국가품질명장의 반열에 올라섰다.

박서용씨는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직원 모두의 협력이 이뤄낸 결과물이지 결코 저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계기로 생산직 직원들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과 한국타이어형 은퇴설계프로그램인 ‘하프타임’ 도입 등을 이끌어 낸 것이 가장 뿌듯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품질명장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국가품질명장협회 대전·충남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정부의 품질명장 육성은 기술은 단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사회공헌이 궁극적인 목적이지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휴일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공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미래세대를 위한 진로 멘토링 △기타 공공기관 컨설팅 활동 등 일선 현장을 찾아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도 관심이 많아 목상동 주민자치회 2023년 회장에 이어 올해는 부회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인생 후반부를 위해 인생 후반부를 위해 공장관리기술사, 경영지도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가진 작은 역량들을 더 많은 기업과 사람들에게 전수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국가품질명장’이 나오게 될 날을 함께 기대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도 건강하고 밝아지지 않을까요”



대덕구가족센터



11월 프로그램 안내

1. 부모교육

★ 모집대상 : 자녀를 가진 **부모** 누구나

① 분노조절편 : 11.2.(토) 10시~12시

② 스트레스편 : 11.16.(토) 10시~12시



분노조절편 신청



스트레스편 신청

2. 캘리그래피

★ 모집대상 : **대덕구민** 누구나

• 기간: 11.4.(월) ~ 11.28.(목) [8회기]

• 일시: 매주 월,목 오후 2시~4시



캘리그래피 신청

3. 양성평등 미디어 추천 콘테스트

★ 내용 : 가정/직장 내 **양성평등** 모습 보여주는 미디어 추천/응모

• 날짜: 10.28.(월) ~ 11.22.(금) 18:00 까지

• 시상방법 : 심사 후 소정의 상품 증정

※프로그램 일정 등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대청로45(신탄진동) 042-639-2664

2024년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구분	현행	개선
지원기준	1인당 25회*	출산 당 25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30%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예: 공난포, 미성숙 난자, 난자채취 실패 등)	시술비 지원 불가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가능 (단, 자발적 시술중단 시 지원 불가)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부부 신분증, 난임시술진단서(체외 또는 인공)
※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사실혼확인 보증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문의 대덕구 보건소 가정보건팀
☎042-608-5483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 지원대상 :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사업기간 : 2024. 12. 6.(금)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
- 사업량 : 270대(저소득층·취약계층 270대)
-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 제외 대상

- 2024년 이전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자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보일러를 교체하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중 지원)
-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동일한 주소지에 따른 가구를 말함

● 신청 방법 및 문의

- 온라인 접수(www.ecosq.or.kr/boiler / 에코스퀘어(환경기술산업원스톱서비스))
- 우편 접수 및 방문 신청 /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환경과

문의 : 대덕구 환경과(☎042-608-6864)



청년부부의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0월 2일 09시부터 상시접수!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연령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의 청년

혼인 2024.1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거주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QR코드로
접속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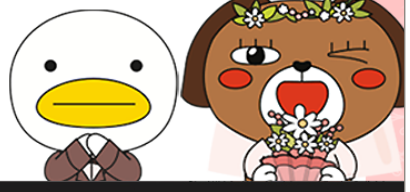
신청기간 2024. 10. 2. (수) 09:00부터 상시접수

지원금액 생애1회
1인당 250만원 일시지급
※2024년 12월 말경 지급(예정)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30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djwedding.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대전시청, 청년내일재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 검진대상

일반건강검진: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생애전환기검진: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 검진비용: 무료(본인부담 없음)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항목 검진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등 11개 항목
 생애전환기검진: 신체계측,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등 6개 항목
 영유아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검진항목 다름

● 검진기간: 2024. 12. 31.까지

● 검진방법: 검진기관 사전 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대상자 및 검진기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

문 의 : 대덕구보건소 보건관리팀(☎042-608-549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대상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위기임산부

위기 임산부란?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문 상담원 배치

맞춤형 상담
모바일, 온라인, 전화, 대면

100% 비밀 상담



긴급상황 시 방문·지원

긴급 상황 시 현장지원
응급분만, 폭력, 홀리스

일시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연계

임신지원연계
임신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등

출산지원연계
출산 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

양육지원연계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상담
1308 상담·방문·지원기관

대덕구 가을지도

가을여행 멀리가지 마세요.
대덕구로 놀러오세요!

금강로하스산호빛공원
대전 대덕구 석별동 522-4



장동만남공원
대전 대덕구 장동 353



선교사촌
대전 대덕구 오정동 133-23



금강로하스대청공원
대전 대덕구 미호동 57-1



계족산
대전 대덕구 장동 85



대전육교
대전 대덕구 신상로 65



동춘당
대전 대덕구 송촌동 192

